

생태공감마당, 사선대에서 열린다

13일~14일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전문가와 체험객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하는 2018 생태공감마당(Ecodive)이 임실군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임실군은 1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관광지인 사선대 생태공원에서 전국민의 함께하는 '2018생태공감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생태체험행사는 지난달 17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은 2일만에 모집정원 200명을 넘어 350여명이 접수를 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생태공감마당은 생태전문가와 체험객이 함께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는 체험을 통해 생태가치 전달 및 생물다양성 인식을 증진 시키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이다.

현장실습 체험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생태공감마당은 지난 2014년 서울 양평에서 첫 개최된 후 올해로 5번째로 임실군에 열린다.

행사는 13일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체험부스 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생태음악회 및 생태토크 콘서트, 야간곤충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선대 생태공원 일원은 시원하게 흐르는 섬진강 오원천과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이다.

후수에 비친 오색찬란한 단풍과 수준 높은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조각공원과 사선대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서 운서정까지 이르는 산책길은 아름다운 수목과 그늘 등 휴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산책코스로서 유명하다.



국립생태원 주관 2018 생태공감마당 임실군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인근에는 수백명의 체험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있다. 섬미산 일원에는 천연기념물 제387호인 가림박달나무와 제388호인 산개나리굴이 분포되어 있어, 우리나라 산개나리의 자생 남방한계선으로써 학술적 가치와 종 보존으로서 가지는 가치가 매우 크다.

관촌면 방수리 방동마을 옆에는 '섬진강 오원천변의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황씨부부의 노력에 감동한 신선이 꿈에서 서리가 녹지 않은 곳에 수로를 내면 물결이 흐를 것이라는 계시로 완성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장제무림이 약 1km 펼쳐져 있다.

지방기념물 제100호인 신라와 백제가 대립하고 있던 6세기에 백제가 전략적 병참기지로 구축한 섬미산성이

둘러쳐져 있다.

여기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가 열린 임실치즈테마파크에도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들이 전시돼 연계관광 효과가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전국적인 행사인 2018 생태공감마당이 우리지역에서 열리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 행사를 계기로 사선대 생태공원 일원이 전국생태체험 일번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사선대 생태공원을 찾아오시고, 또 치즈축제가 열린 임실치즈테마파크에도 방문하셔서 활짝 피어있는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도 구경하시면서 가을날의 멋진 추억을 임실에서 즐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천만 국화꽃 만개

임실N치즈축제 성공 큰 호자... 10월 내내 만개 예정

2018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던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의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들이 전국체전 관람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임실군은 치즈축제에 맞춰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에 전시한 아름다운 국화꽃들이 이달내 만개, 체전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 국제양공장과 종합사격장은 13일부터 17일까지 경기가 열린다. 이어 전국장애인체전도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를 가득 메운 국화꽃은 화분 3만여개에 천만송이가 넘는다. 임실치즈의 원조인 지정환 신부와 신앙을 형상화한 치즈캐슬 메인광장은 축제기간 관람객들의 탄성과 함께 앞다투어 사진촬영을 할 만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는 34만여명이 찾은 것도, 이들 국화꽃들이 큰 역할을

해냈다. 올 가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핀 국화꽃으로 알려진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전시된 국화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가의 탐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다. 일년내내 밤잠까지 설치며 만들어낸 '작품 중의 작품'이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지역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빠른 입소문을 타면서, 축제장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호평과 천만송이 국화, 독창적인 프로그램들로 인기를 끌었다.

심민 군수는 "임실치즈의 전설인 지정환 신부의 열정과 신앙을 형상화하며, 축제장 일대를 가득 메운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이 올해 축제에서도 큰 효자역할을 해냈다"며 "축제 이후에도 꽃이 질때까지 전시될 예정이므로 전국체전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들러,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에서의 멋진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 아리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리더십 향상 위한 워크숍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삼순)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및 회원, 읍면 여성지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018년 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남 보령 비체펠리스트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날인 10일 (주)태평양교육센터 하수의 강사를 초청해 '리더의 성공첫걸음, 예절과 비즈니스 매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을 주최한 김삼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 및 군 여성단체 간 화합과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단 직무교육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지난 10일 서부청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대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대상은 소속기관, 지자체 등 14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총 60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생활사 및 예찰 방제조사 요령에 대해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시료 채취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인력에 대한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재선충병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운동 실천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사무용품 공동 나눔함 설치로 아껴쓰고 다시쓰기 의식 전환

순창군이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대응해 에너지·물품 절약운동을 강도높게 실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순창군이 먼저 솔선 수범하기로 하고 다양한 세부실천과제 추진에 나섰다.

또한, 출장과 회의 등으로 20분 이상 자리를 비울때는 컴퓨터 모드를 전력대기모드로 전환하는 PC 대기전력 차단 소프트웨어를 군 전체 컴퓨터에 설치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사무용품의 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직원 개인이 소지해 사용하던 사무용품을 한곳에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 나눔함을 전체 부서에 설치해 공동 사용함으로써 아껴쓰고(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사무용품 나눔함은 직원들이 필요할 때만 용품을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나눔의 미학도 실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사무용지도 이번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최종국 재무과장은 "공무원들 먼저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전기 에너지와 한방울의 수도물이라도 아낀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에너지 절약운동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본격 가동

남원시가 대산면에 설치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 시설을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분리배출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시스템은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호퍼에 투입해 컨베이어를 거쳐 1차 수선별실에서 스티로폼·유리병·대형 재활용품을 먼저 선별하고, 이어 발리스틱 선별기로 비닐을 분리 처리한 후 자력선별기에서 캔·알루미늄캔·부탄가스를 선별한다. 자동화 시스템인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분리배출 습관이 정착되어야 하지만, 관급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수거해오는 재활용품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각종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가전제품 등이 함께 섞여오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클린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지"고 당부했다.

남원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은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모아 선별, 분류처리하고 있으며, 대산면 쓰레기 처리장에 반입되는 하루 재활용품은 2016년 5.68ton, 2017년 6.09ton, 2018년 9월말 기준 7.07ton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통동, 동민의날 행사

남원시 도통동 발전협의회는 12일 제2회 도통동민의날 행사를 도통동민공원에서 펼친다.

이날 행사는 도통동 발전협의회(회장 김희민)가 주관해 '동민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도통동'이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며, 이환주 시장, 윤지홍 의회의장을 비롯한 도통동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이 함께하는 흥겨운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헌신한 하재욱 남에게 공익장을, 박문용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올해 100세인 박인분 어르신과 97세인 김대기 어르신에게는 장수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